

제6대 황철수 교육감 취임사



제 6 대 황철수

재임기간 : 제6대 (1983.2.28~1987.2.4)

존경하는 교육동지여러분!

선진 조국 창조의 국민적 여망이 날로 고조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부족한 본인을 제6대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감으로 선출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에게 정중히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신 역대 교육감 여러분과 제5대 이준경 교육감님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5공화국의 출범으로 이 땅에 민주주의를 토착화하고 정의·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개혁이 힘차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교육분야에서도 80년 7월 30일에 단행된 일련의 교육 개혁의 궁극 목표인 교실 개혁을 우리 교육자 스스로의 힘으로 이룩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반공 제1선에 위치하고 호국의 열을 간직한 경기도교육을 본인이 맡게 된 데 대하여 막중한 사명 의식과 책임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은 대통령 각하의 교육개혁 의지를 받들어 문교지표와 지금까지 쌓아 온 교육행정 그리고 일선 교육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 100만 학생을 주인 정신과 통일 안보 의식이 투철한 새 시대의 역군으로 육성하는데 삼만 교육 동지 여러분과 뜻을 합쳐 열과 성을 다할 굳은 결의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은 가정, 학교, 사회가 혼연일체가 되었을 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부모를 비롯한 전 국민에게 올바른 자녀 교육관을 갖게 하고 교육 시책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장 중심의 창의적인 학교 경영을 최대로 보장하고 학생 스스로 계획하고 탐구 해결하는 자주적인 학습 풍토를 조성하여 학생과 교원의 복지 증진 및 도서벽지 영세 학교에 대한 교육시설 지원 등

본도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본인의 재임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교육시책은 현황이 확정 되는대로 적절한 방안을 수립하여 다음 기회에 밝히기로 하고 오늘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몇 가지 소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인 교육을 통한 조화로운 인간을 육성해야 하겠습니다.

다양하고 무한한 인간의 잠재적 가능성과 재질을 최대한 계발시켜 주는 일이야말로 우리 교육자의 책무입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2세들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키워 나가는 일이 교육의 이상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일반적으로 ‘사람다운 사람’의 가치 기준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고도 산업 사회와 물질문명의 빠른 변화에 교육의 사회화 기능을 다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결과만을 추구하는 지식 위주의 교육은 실로 많은 교육 비리와 병폐만을 낳게 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교육의 흐름도 지적 성취를 위한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서 전인교육을 위한 인격 형성에 힘을 기울이는 교육의 인간화에 역점을 두는 추세라고 볼 때 우리도 ‘사람다운 사람’으로 교육하기 위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 교과 시간마다 모든 교육자가 의도적으로 꾸준히 인간 교육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방과 후 학교 운동장 이곳저곳에서 많은 학생들이 신체를 단련하고 음악실에서 합창, 합주연습 소리가 흐르고 미술실과 교정 곳곳에서 화판에 아름다움을 아로 새기는 모습이 보이며 도서실에서는 독서에 열중하는 학생들이 가득찬 학교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조화로운 인간교육의 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들딸들은 지식과 교양이 충만하면서도 조국과 민족이 처한 현실을 올바르게 직시할 수 있는 미래 지양적 안목과 꿈을 가지게 될 것이며 기본생활습관을 익혀 질서를 지키고 준법정신이 체질화된 민주 시민으로서의 가치관이 형성되어 우리가 바라는 교육은 충실히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탐구·창조하는 과학기술 교육의 진흥에 힘쓰겠습니다.

고도산업사회에 있어서의 과학기술의 수준은 그 나라 국력을 가름하는 척도로서 모든 나라들이 다투어 과학기술 교육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각하께서도 과학기술 발전의 성패가 우리 조국의 흥망에 직결된다고 말씀하시고 앞으로의 과학기술 교육은 실용화할 수 있는 산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추상적인 이론과 지식 중심의 과학기술 교육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실험, 관찰, 실습을 통한 기초과학 교육에 역점을 두어 탈산업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두뇌개발 교육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본도에 설치한 과학고등학교 운영의 내실을 기하여 과학 영재 양성에 힘씀으로서 본도가 우리나라 과학교육 진흥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존자원이 한계점에 도달한 우리의 여건에서는 무진장의 보고인 바다를 개발하는 것은 우리의 절실한 당면 과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천혜의 요건을 갖춘 서해를 바라보고 있는 본도로서는 해양 개발이 최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각급 학교의 교육 과정 운영은 물론, 특활을 통해서 해양탐구 교육에 힘쓰는 한편 지역 특성에 알맞은 지역 개발 역군을 기르는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한편 국제 경쟁에 뒤지지 않고 국제사회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과 의사소통에 불편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각급 학교의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여 2000년대의 국가와 민족발전에 기여할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사명감이 투철하고 긍지가 높은 사도를 확립하겠습니다.

교육은 교사와 학생의 만남에서, 인격과 인격이 마주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많은 지식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인격자로서 손색이 없어야 합니다.

자라나는 2세들이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국가 사회에 봉사하도록 하려면 먼저 우리 교사들이 투철한 국가관과 교육철학을 가지고 학생교육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성실성을 지녀야 하며 스승다운 품성과 자질 그리고 지도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과 행동이 만인의 사표가 되어야 하며 솔선수범과 교육애를 바탕으로 학생을 지도할 때 바람직한 교육의 성과를 올릴 수 있고 존경받는 스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장을 중심으로 한 교내 자율연수에 부단히 노력하여 교직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투철한 사명감과 긍지를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교단은 시설 여건의 미비와 입시제도 등을 이유로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교수학습을 외면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다가올 고도산업사회와 국제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탐구하는 태도와 능력을 길러주는 학생생활 중심의 학습활동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평소 일선 학교에서의 학생 중심 학습활동을 전개하려면 학교 내외 전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교수학습에 활용함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위원회를 비롯한 교육행정기관과 교육연구원, 과학관 등 직할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학생생활 중심의 교수학습에 직결되도록 교단지원을 충실히 하는데 활용하겠습니다.

교육동지 여러분!

오늘의 교육은 2·30년 후의 국가와 민족의 바탕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오늘 교육감의 중책을 맡게 된 본인은 생애에 있어서 다시없는 가장 보람 있고 영광스러운 기회임을 절감하면서, 모든 정성을 바쳐 국가번영의 초석이 될 경기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내빈, 그리고 교육동지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의 행복을 빌면서 취임사에 대신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83년 2월 28일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감 황 철 수